

“노인문제 해결 위해 불교가 적극 나서야”

박광준 교수 제2차 불교사회복지 심포지엄서 주장

고령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8년 7월 1일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501만명으로 총인구의 10.3%를 차지했다. 통계작성 이후 처음 총인구의 10%를 넘었다. 새해를 맞아 제주도(도지사 김태환)가 2009년을 노인복지 재도약의 해로 지정했고, 충남도(도지사 이완규)가 노인복지맞춤 5개년 계획을 내놓는 등 각 지자체의 노인복지 대책이 줄 잇고 있다. 불교계도 천태종복지재단(이사장 정산)과 진각복지재단(이사장 회정)이 앞 다투어 노인복지에 매진할 것을 선언하는 등 불교계의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광준 교수(일본 불교대)가 “오늘날 노인문제는 동아시아 문화에 기인한다”며 “동아시아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불교가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끈다.

박 교수는 날마다 좋은 날(이사장 김의정)과 동국불교사회복지회(회장 성지환)가 1월 13일 조계종 중앙신도회관 교육관에서 개최한 <불교사회복지학 개론서> 발간을 위한 제2차 심포지엄에서 ‘노인복지에 대한 불교적 접근’을 주제로 발표했다.

#노인학대·자살 문제 심각

박광준 교수는 “오늘날 노인들은 가족과 동거하면서도 가족 내 역할은 오히려 적은 모순 속에 살고 있다”며 “노인들은 특히 자살과 노인학대 문제로 안정적 삶을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사망원인에 관한 통계적 자료의 최근 특징은 자살자수 증가. 1988년 3057명이던 자살자수는 2007년 1만2174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박 교수는 “한국의 80세 이상 노령인구 자살은 10년간 4배 이상 늘었다”고 설명했다.

노인학대 문제도 심각하다. 일본의 경우 2005년 ‘고령자학대방지법’이 제정됐고, 중국은 ‘노년 인권의보장법’에 노인학대를 형

법으로 다스리게 명시했다. 한국도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노인학대를 방지하고자 했다. 박광준 교수는 “피학대자가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학대행위가 일어난다”며 “노인학대는 힘의 불균형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 박 교수는 △자녀에 대한 과도한 투자와 지원 △부모의존

뿐더러 궁극적으로 불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로 이어진다”며 “불교가 동아시아 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면 현재의 노인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 표명을 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승가의 숭신 중요

박 교수가 제시한 불교적 해법의 원리는 사성제. 박광준 교수는

노인학대 원인을 지목하지만 동체대비를 인식하지 못한 무명으로서 고제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문제의 대처로 설명되는 멸제에 있어서도 모든 불자로 신고의 무자를 확대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교수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제시한 대책은 승가 공동체의 모범이다. 박광준 교수는 “노인복지법 등에서는 법적 제



박광준 교수(일본 불교대)는 1월 13일 열린 <불교사회복지학 개론서> 발간을 위한 제2차 심포지엄에서 ‘노인복지에 대한 불교적 접근’을 주제로 발표했다.

형 성인자녀의 증가 △장년층의 부담과 부양의지 등으로 노인문제를 진단했다. 박광준 교수는 한국의 백수 문제, 노부모의 연금수령일마다 찾아와 용돈을 받아가는 일본의 파라스이트 싱글, 중국의 컨라오족(耄耋族)을 예로 들었다. 컨라오족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이 늙은 부모에게 의지하는 현상을 뜻하는 신조어다.

박 교수는 “장년세대들이 자신의 노후를 고려하지 않고 자녀에게 과도하게 투자하는 관행이 사회에 문제 있는 젊은이를 양산했다”며 “노인문제는 한국 뿐 아니라 (불교를 문화 근간으로 삼은) 동아시아 전체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광준 교수는 “사회문제에 대한 불교계의 시의적절한 의견표명은 사회의 길잡이가 될

“노인복지를 포함한 불교 사회복지론에서의 기본원리는 사성제 가르침에 근거해 추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제(苦諦, 인생의 고통에 관한 진리)는 문제의 발견, △집제(集諦, 고통의 원인에 관한 진리)는 문제의 원인 탐구와 분류, △멸제(滅諦, 고통을 없애는 것에 관한 진리)는 정책프로그램의 시행, △도제(道諦, 고통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관한 진리)는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책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공적 사회복지 관점으로서는 신체적, 정신적 폭력과 경제적 착취 등에 한정하지만, 불교 사회복지의 입장에서는 노인에 대한 배려 여부 등 폭넓게 정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적 윤리관 불교와 수발 부담 등으로

재 등을 강화하고 있지만, 불교적으로는 효행에 숭신하는 승가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중국 불교계에서는 지방총림(한국의 교구본사에 해당)에는 연수당(延壽堂)을 두고 고행의 승려를 보살피며, 자손총림(말사에 해당)에서는 제자 등이 보살피고 있다”며 “한국 불교계에서도 승가노후복지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교복지 전문가 양성해야

박광준 교수는 “불교적 사회복지 실천을 위해서는 체계적 불교 교리에 앞서 대인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과 사회복지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대인관계에 대

한 기본적 태도를 보시(布施, 물심 양면 남을 위하기, 애어(優語, 따뜻한 말 건네기), 이행(例行, 남을 이롭게 하기), 동사(同事, 상대방의 입장에 서기)의 사십법과 안시, 화안시 등 무재의 칠시(七施)로 제시했다. 사회복지 전문적 지식으로는 사회복지의 가치와 전문적 지식·기술을 설명했다.

박광준 교수는 “불교 사회복지 실천가에게는 불교교리를 사회복지 전문적 지식과 대응하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불교 교리에서 사회복지실천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교리를 선별해 불교적인 사회복지실천기술을 체계화하는 길에 불교사회복지를 체계화하는 과정”이라 주장했다.

한편 <불교사회복지학 개론서> 발간 사업은 조계종 중앙신도회 등이 2007년 초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주제발표에 앞서 경과보고인 이태화 이사장(무남장학회)은 “2007년 12월 현재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등록된 복지시설은 650개소, 종사자수는 1만7000명에 달한다”며 “불교사회복지 전문가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개론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Tip 컨라오족은?

최근 중국 사회문제로 대두된 컨라오족(耄耋族)은 노인을 갈아먹는 젊은 층을 뜻한다. 한결같이 직업이 없고, 두 사람의 연로한 부모를 갈아 먹고, 세기 밥은 배불리 먹으며, 사치는 무력하고, 오피는 단정하며, 부모를 알지 못하고, 열에 일곱은 제멋대로 하며, 팔방으로 돌아다니며, 오랫동안 앉아 움직이지 않아 심신 쓸모없는 사람을 말한다.

“6세기 제작 기와 출토”

신라 최초 사찰 흥륜사터는 경주고고

신라 최초의 사찰 흥륜사(544년 창건)가 있던 자리인 경주시 사정동에 위치한 경주공고라는 학계의 가설을 뒷받침할 관련 유물이 출토돼 눈길을 끈다.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이영훈, 이하 박물관)은 1월 13일 경주공고 운동장에서 현장설명회를 열었다. 박물관은 경주공고 배수시설 설치부지 발굴조사 중 발견된 건물지 기둥 하부에서 적심 7개소, 건물기단 석열, 기와가 깔린 배수로 등을 확인했다.

박물관 측은 “현재 교정에 놓인 대형 초석과 새로 발견된 지름 1.3m의 대형 적심 등은 큰 건물이 있었던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경주공고에서 출토된 연화문 수막새.

이러 “출토유물 대부분이 통일신라 시대 것이지만 외왕의 경우 6세기 중·후엽에 해당하는 연화문수막새가 발견됐다”며 “고식(古式) 수막새 발견으로 흥륜사 추정지에 대한 가설이 힘을 얻게 됐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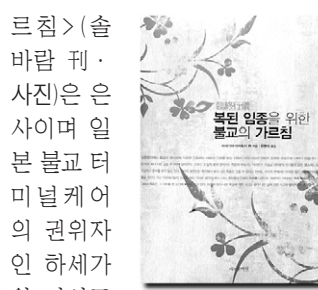
조동섭 기자

불교에서 말하는 호스피스?

‘복된 임종을 위한 불교적 가르침’ 나와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죽음만큼 두려움을 주는 것이 있을까? “잘 죽고 싶다”는 웰딩 바람이 상조회사 등 장례업 호황을 불러온 세대에 죽음에 대한 철학의 부재가 지적되는 이들도 많다. 이와 함께 죽고 나서 장례를 잘 치루는 것이 아닌 바르게 죽는 법을 구하는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이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런 가운데 불교 임종행의(臨終行儀, 호스피스)에 대한 서적이 출간돼 관심을 모은다.

일본에서 터미널케어(치유 가능성 없는 환자를 돕는 행위)를 중심으로 불교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윤현숙 소장(불교복지연구소)이 번역한 <복된 임종을 위한 불교적 가



르침 > (솔바람 꺾어 사진)은 사이며 일본 불교 터미널케어의 권위자인 하세가와 마사토시 교수(슈큐토쿠대학)가 저술했다. 윤 소장은 “불교에서는 서양식 호스피스보다 오래전부터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 대한 실천적 지침을 마련했다”며 “임종행의에는 불교의 생사관에 기초한 간호자와 간호를 받는 자의 마음가짐과 작별이 응축돼 나타났다”고 말했다. (02)720-0824 조동섭 기자

한국불교학회 2008겨울 학술워크숍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선근)는 2월 3일 오후 2-6시, 서울 불광사에서 ‘불교의 생명존중사상과 동물의 생명권’을 주제로 2008겨울 학술워크숍을 개최한다. 행사에는 우희종 교수(서울대)가 ‘한국에서의 동물학대 현황과 실태’를, 안성두 교수(금강대)가 ‘유럽에서의 동물의 생명권’을 발표한다. 지정토론자로 조성택 교수(고려대)와 허남결 교수(동국대)가 참여한다. (02)2260-3130 조동섭 기자

빙의 퇴마 최면을 전수합니다

빙의 치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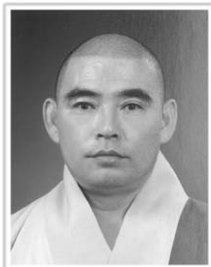
●영을 직접 불러 누구인지? 무슨 원인인지? 소원이 무엇인지? 천도

전생체법

●원통한 인간의 인과 응보와 원인을 찾아 업장을 소멸하고 사업자, 상업자에게 사업성취를, 기도자는 기도성취를, 원인모를 약질증상 등을 좋은 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치유가능한 증상들

- 빙의(귀신병), 퇴마,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공포, 불안공포, 불면증, 만성두통, 게임중독, 약물중독, 급한성격, 집중력, 성적향상 등등 ●빙의, 퇴마, 최면을 배우실 분 ●자기최면, 타인최면을 배우실 분
- 자녀들의 성적향상을 위한 부모님 ●포교활동에 꼭 필요한 분(성직자 특별우대, 종교불문)
- 전수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대체의학, 최면, 빙의, 퇴마 등을 한국에서 전수 가능하며 전수 후에 각 시도 지사도 가능함 ●최단기간 실전교육 ●최면기술 누구나 가능합니다.
- 어디 아프세요, 불치병 몽땅 상담하세요. ●하는 일마다 안풀리세요, 당신의 사주를 바꾸세요
- 빙의(귀신병) 퇴마, 최면? 100% 전수 - 치유 ●우울증, 공황장애, 산소수맥
- 비염, 발기부전 특효 ●임산부 무통분만



서울지사 :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251번지 연세빌딩 후문앞 지장사
☎ 02)796-7579
H·P 010-3056-3315
●서울교육 : 목, 금, 토, 일 (속식가능)

부산지사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388-8 (부산 지하철 2호선 화명역 2번출구 전자랜드 후문 앞)
☎ 051)364-5586
H·P 010-3056-3315
●부산교육 : 속식가능

한국 빙의 퇴마 최면 연합회 본부 지 장 사 현오 합장
HTTP://WWW.JIANGSA24.ORG

한국 불교의 현주소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결정판!

『한국불교총람』 2008년 판이 발간되었습니다

지난 1993년 초판 발행과 1998년 개정판 발행 이후 10년 만에 간행된 『한국불교총람(韓國佛敎總覽)』 2008년 판은 한국 불교의 현황을 집대성한 종합 자료집입니다. 『한국불교총람』은 오늘의 불교 뿐 아니라 미래 불교의 모습을 예견할 수 있는 생생한 자료입니다.

● 주요 내용

- 한국 불교의 현황 - 1998년 이후 한국 불교의 전반적 변화와 특징, 현황을 함축적으로 정리.
- 종단 - 불교 종단 160여 곳의 현황 정리.
- 법인 - 불교 관련 법인 390여 곳의 현황 수록.
- 불교단체/기관 - 불교단체 및 기관 2,000여 곳의 현황 수록.
- 사찰 - 국내의 사찰, 암자, 포교당 15,000여 곳의 목록 수록.
- 인명 - 승려 및 재가불자 2,500여 명의 개인 인명자료 수록.
- 불교도서논문(1998~2008, 상반기) - 1998년 개정판 이후 간행된 불교관련 단행본 및 학위 논문 수록.
- 한국불교연표(1998~2007) - 1998년 개정판 이후 한국 불교 관련 사건 및 주요 행사 수록.



● 4×6배판 양장제본, 1300쪽, 정가 160,000원

(재) 대한불교진흥원 www.kbpf.org

121-714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전화 02-719-2606, 팩스 02-719-5052

보급 문의 : 도서출판 운주사 (02-3672-7181)